

아마 골프 지존 대결 ... 늦가을 초록 잔디 뜨겁게 달궜다



호쾌한 티샷 12일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남자골프대회에 참가한 골프 동호인이 사계절 푸른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 CC 팰리스 코스 3번홀에서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사계절 푸른 양잔디...함평다이내스티CC서 성료
우승 김형배씨·메달리스트 임석호씨

아마추어 골프인들의 샷대결이 늦가을 필드를 뜨겁게 달궜다.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2일 '호남 최초의 사계절 푸른 양잔디' 함평 다이내스티 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함평다이내스티 CC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60명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하여 프로 못지 않은 샷 감각을 뽐냈다. 팰리스·마제스티 홀(18홀·파 72)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오후 12시 막이 올랐으며, 참가자들은 늘 푸른 양잔디와 늦가을의 정취가 어우러진 코스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18홀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 최종 우승의 영예는 김형배(51·목

포)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넷트 스코어 67.6타(그로스 스코어 88타)로 3회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씨에게는 함평다이내스티 CC 1년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의 특전이 주어졌다. 준우승은 장운식(46·함평)씨가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넷트 스코어 68.6타(그로스 스코어 71타)를 기록, 준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장씨는 1년간 주중 회원대우, 주말 준회원대우 특전을 받는다. 스트로크 방식에서는 임석호(49·광주)씨가 우승자가 됐다. 4언더파 68타를 기록한 임씨는 메달리스트 트로피와 함께 1년간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의 부상을 받았다. 대회 통기스트는 마제스티 18번홀에서 267m를 기록한 조휴오(43·광

주)씨가 선정됐고, 팰리스 23번홀에서 홀컵에 20cm를 붙인 김금옥(46·광주)씨가 니어리스트 타이틀을 차지했다. 김형배씨에게는 노력상이 수여됐다. 추첨을 통해 뽑힌 행운상 10명에게는 골프용품세트 등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정상수씨 등 남 77타, 장년부(만 41~49세) 79타, 시니어(만50세 이상) 82타 이하를 기록한 9명은 US-GTF 티칭프로 선발시험 실기테스트 합격권을 얻었다. 대회 진행을 맡은 김구식 US-GTF 경기위원장은 "다른 어느 대회장보다 코스관리가 훌륭하게 잘 되어 있었고 참가 선수들도 매너있게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였다"며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좋은 대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대회답게 USGTF-KOREA(미국골프지도자 협회 한국연맹)가 대회 진행을 맡아 공정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이끌었으며, 전남도와 함평군, 대한골프협회가 대회를 후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CC 클럽하우스 앞에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는 제 3회 광주일보배 전국아마추어 남자골프대회 참가자들.

“골프 시작 후 최고의 행운”

우승 김형배씨

“골프를 시작한 이후 최고의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형배(51·목포)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대회에 나온다고 아침부터 챙겨주고, 응원을 보낸 아내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67.6타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익숙한 함평 다이내스티 CC에서의 플레이

라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김씨는 “양잔디가 좋다고 해서 함평 CC를 찾았는데 목포에서도 가깝고 코스도 최상이다”고 말했다. 자신의 장기인 드라이브샷이 좋지 못했지만 ‘인내’를 앞세워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김씨는 “드라이버가 특기인데 오늘은 드라이버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우드로 주로 승부를 했다”며 “무엇보다 인내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대회에서도 잘 치다가 한 홀에서 12타를 쳤다. 인내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자고 마음 먹고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골프 경력 5년차인 김씨의 목표



는 꾸준한 플레이다. 김씨는 “필드에 자주 못 나가서 아침·저녁으로 꾸준하게 연습장을 나가고 있다. 숏게임이 약한데 연습 많이 해서 75타 이하로 꾸준하게 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설레는 첫 ‘태극마크’

KIA 윤석민·이용규와 함께 WBC 예비명단
류현진·추신수 포함 ... MVP 박병호는 제외

내년 3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야구 국가대표팀에 해외파인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이대호(오릭스 버펄로스)와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류현진(한화)이 모두 포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회 WBC 국가대표팀 감독, 코칭스태프 및 참가선수 28명의 예비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와 이대호,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입단이 임박한 류현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추신수가 “WBC 출전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권을 클리블랜드 구단에 넘겼고, 류현진도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다면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명단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1차로 선발된 선수 중 투수는 유안 오승환(삼성)·윤석민(KIA), 좌

완 김광현(SK)·류현진(한화), 언더핸드 투수 정대현(롯데) 등 13명이었고 포수는 진갑용(삼성)·강민호(롯데) 2명이다. 내야수는 이승엽(삼성), 정근우(SK), 이대호(오릭스) 등 8명이 선발됐고, 외야수에는 김현수(두산), 이진영(LG), 추신수(클리블랜드) 등 5명이 뽑혔다. 경쟁이 치열했던 1루수 후보에서는 올 시즌 최우수선수(MVP)인 박병호(넥센)가 밀렸다. <WBC 예비 명단> △감독 = 류중일(삼성) 감독 △코치(6명) = 양상문(KBO 기술위원), 한용덕(한화), 박정태(전 롯데), 김



동수(넥센), 김현수(삼성), 유지현(LG) △투수(13명) = 장원삼 오승환(이상 삼성), 김광현 박희수(이상 SK), 노경은 홍상삼(이상 두산), 정대현(롯데), 윤석민 김진우(이상 KIA), 봉준근 유원상(이상 LG), 손승락(넥센) 류현진(한화) △포수(2명) = 진갑용(삼성), 강민호(롯데) △내야수(8명) = 이승엽 김상수(이상 삼성), 정근우 최정(이상 SK), 손시현(두산), 강정호(넥센), 김태균(한화) 이대호(일본 오릭스) △외야수(5명) = 김현수(두산), 전준우(롯데), 이용규(KIA), 이진영(LG), 추신수(미국 클리블랜드)

“즐겁게 라운딩...4언더 베스트 스코어”

메달리스트 임석호씨

“동반자들과의 즐거운 라운딩에서 베스트 스코어를 냈습니다.”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임석호(49·광주)씨가 강풍을 뚫고 68타의 기록을 써내며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자신의 베스트 스코어이자 광주일보배 두 번째 수상이다. 임씨는 지난 1회 대회에서는 홀컵에 20cm만을 남긴 정확한 샷으로 니어리스트 상을 받았었다.

임씨는 “이 대회와 인연이 많은 것 같다. 1회 대회에도 출전했는데 자동차 부상이 결렸던 홀에서 거의 휴원원을 하는 줄 알았다”며 “편안하게 즐기자는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는데 즐겁게 라운딩을 하고 상까지 받고 돌아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15년 골프경력을 가진 임씨의 장기는 아이언 샷. 임씨는 “집에서 빈스윙을 많이 하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편이다. 퍼팅하는 데 자신감과 있고 숏게임에 강하다”며 “4회 대회에서도



광주일보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